

KISTEP 통계 브리프 2006-15호

주요 기술분야별 특허성과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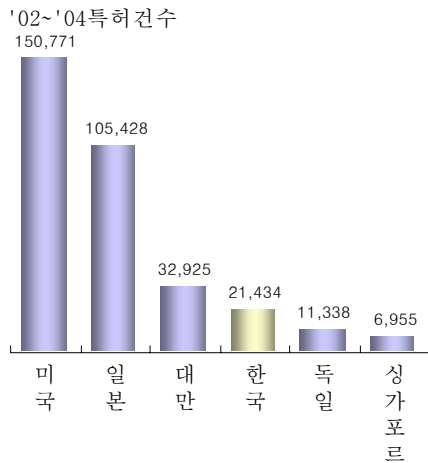
(반도체, 자동차, 바이오 분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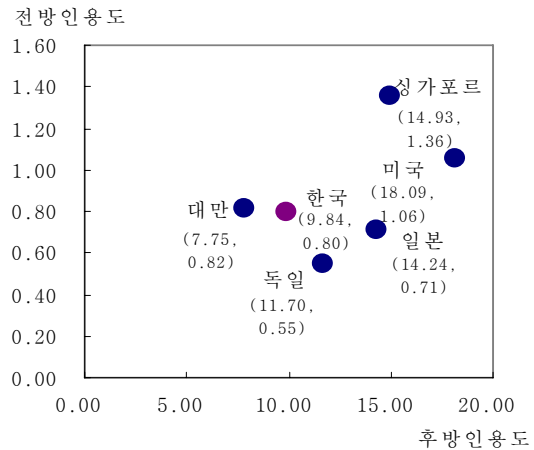
□ 반도체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- 우리나라의 반도체분야 등록특허는 일본의 약 1/5, 미국의 1/7 수준
 - 인용도가 대만, 독일, 일본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, 특히 전방인용도는 1에 못 미치는 수준임.
- 반도체분야에서 과학과 특허와의 연계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임.
 - 미국은 건당 약 3.6개의 비 특허 문헌이 인용되는 반면, 우리나라는 평균 약 0.71개가 인용되고 있음.
- 반도체분야의 특허당 평균 IPC개수는 1.44개로 일본, 독일에 비해 낮은 편이며, 타 산업의 연계성 및 기반성이 낮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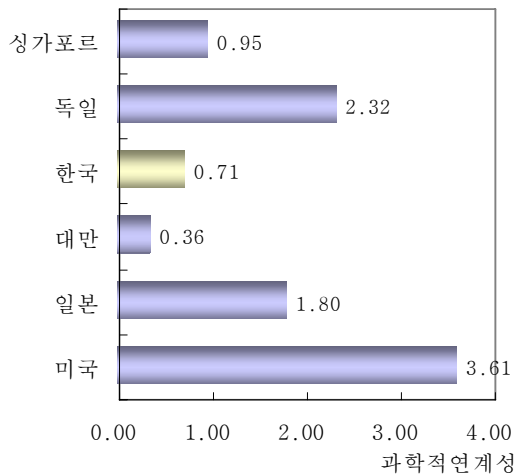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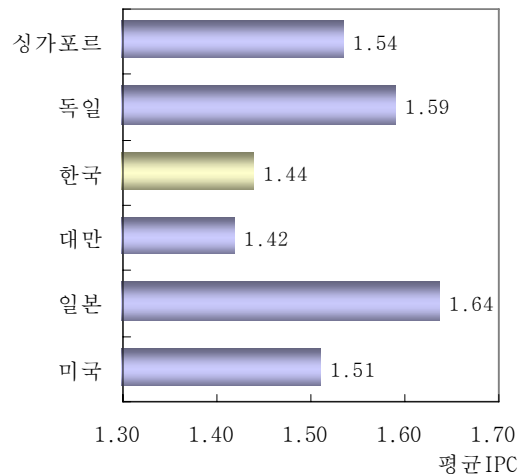
<그림 2> 인용도



<그림 3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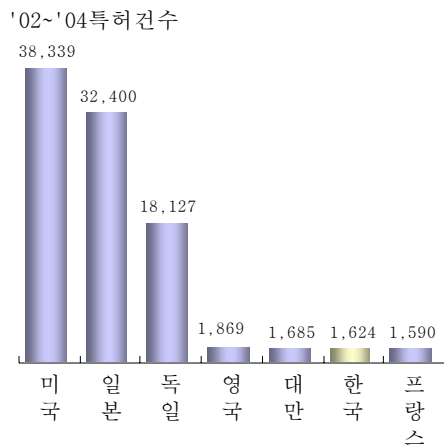
<그림 4> 특허당 평균 IPC개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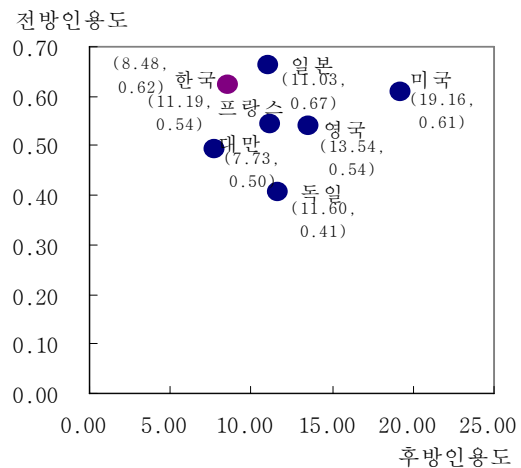
□ 자동차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- 자동차분야 등록특허는 1,624건으로 영국, 대만,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국의 4%, 일본의 5% 수준임.
- 선행기술의 인용도를 나타내는 후방인용도가 매우 낮은편으로 관련 기술의 대상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 않음.
- 전방인용도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편으로 확보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음.
- 우리나라의 과학적 연계성은 0.18로 최하위권 수준임.
- 자동차분야 특허의 산업적 범용성이 낮음.
- 자동차분야의 평균 IPC 개수는 1.22개로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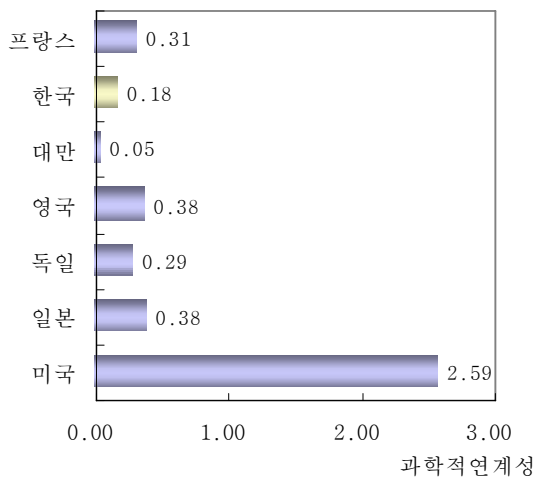
<그림 5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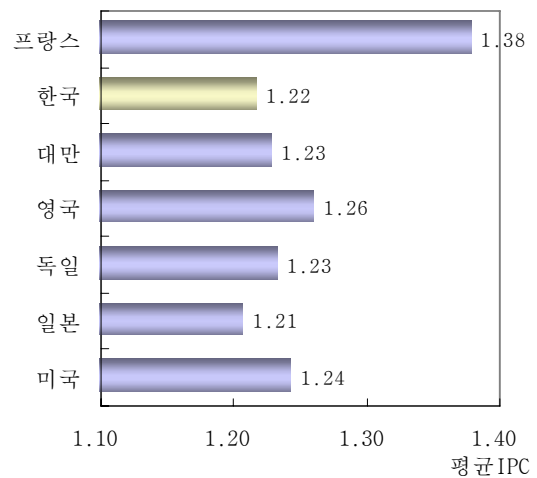
<그림 6> 인용도



<그림 7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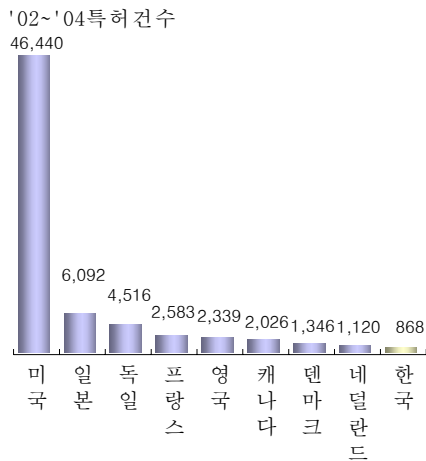
<그림 8> 특허당 평균 IPC개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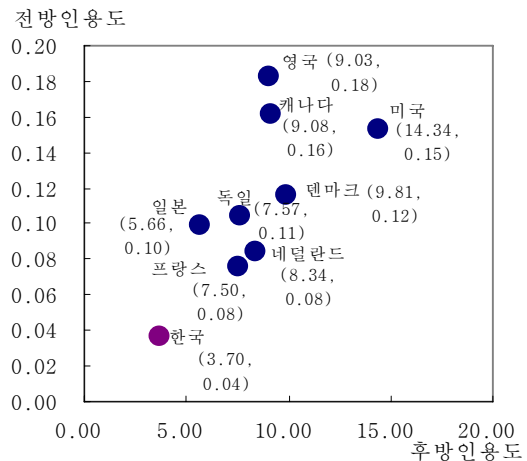
□ 바이오분야 특허활동 및 경쟁력 비교

- 바이오분야의 등록특허는 비교대상 국가의 최하위인 868건이고, 미국의 1.9%에 불과.
- 바이오분야의 인용도 역시 낮은 수준이며, 이는 특허의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낮은 수준임.
- 과학적 연계성도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.
- 하지만, 기술순환주기는 5.71년으로 다른 나라보다 가장 짧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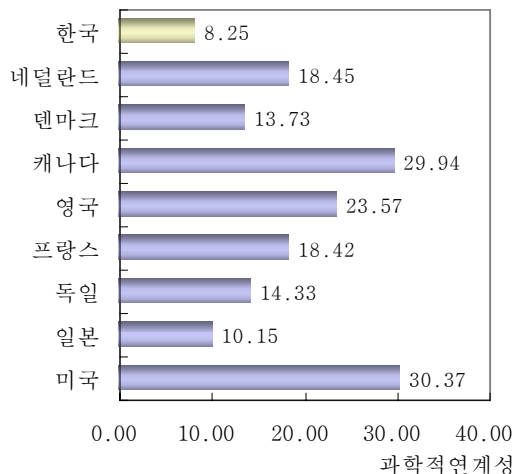
<그림 9> 특허건수('02~'04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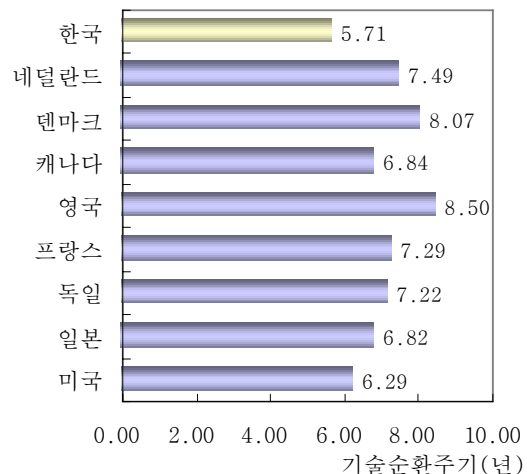
<그림 10> 인용도



<그림 11> 평균 특허당 과학적 연계성



<그림 12> 기술순환주기(년)



* 자료원 : 2005년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

* 자료관련 문의: 기술혁신지표팀 (02-589-2829)